

멸종위기 매부리바다거북, 국내 최대 규모 인공증식 성공

- 인공증식 개체는 1~2년간 수족관에서 보호·관리한 후 2024년부터 자연방류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멸종위기에 처한 매부리바다거북의 대규모 인공증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아쿠아플라넷 등과 공동으로 '바다거북 인공증식 연구'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에 국내 최초로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증식에 성공하였다. 이번 인공증식은 역대 4번째*이다.

* 매부리바다거북 인공증식 사례 : 2018년(24마리), 2019년(20마리), 2021년(2마리)

그간 매부리바다거북 인공증식은 한 번에 2~24마리씩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총 469개의 알을 산란하고 그 중 유정란 130개의 인공 부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증식 규모로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초 산란 후 62일째인 지난 7월 28일 첫 번째 아기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난 이래 현재까지 총 5마리가 부화에 성공하였고,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부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인공증식된 어린 바다거북 개체는 향후 1~2년 동안 수족관에서 보호·관리를 받으며 성장한 후, 일부 개체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다에 자연 방류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부리바다거북의 대규모 인공증식 성공을 계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의 인공증식과 구조·치료를 확대해 나가는 등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제주도 종달항 인근에서 정치망에 혼획된 푸른바다거북 1마리를 구조하여 치료한 후 지난 8월 17일 바다로 돌려보내는 등 바다거북의 구조·치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장	신재영	(044-200-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서기관	최재용	(044-200-5315)

□ 바다거북 인공산란장 및 인공증식 개체 사진



바다거북 인공 산란장 및 개별 보호수조(아쿠아플라넷 여수)



7.28. 첫 부화한 매부리바다거북 부화 개체(1개체)



8.14. 2차 부화한 매부리바다거북(4개체)